

20장 가정과 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들

20장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신접한 자에 대한 경계로 끝난다(1-5, 27).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18장에서 언급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와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구분할 수도 있다.

- (1)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 (20:2a-6)
- (2) 거룩하라 /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와 규례에 순종하라 (20:7-9)
- (3)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죄들 (20:10-21)
- (2') 여호와와 규례에 순종하라 / 거룩하라 (20:22-26)
- (1') 우상숭배자에 대한 심판 (20:27)

이러한 구조는 성결 법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특히 혼인에 대한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금함으로써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머리말 (20:1-2a)

거룩함에 관한 계명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내려 주셨다. 20장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백성이 행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규례를 잘 알아야 되었다.

1. 몰록과 우상 숭배자를 제하라 (20:2b-6)

몰록에게 자녀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18:21에서 가르쳤다. 20장에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도록 하였다. 재판관이 먼저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백성, 곧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돌로 치도록 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의 친척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친히 끊어내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에 가장 먼저 알게 될 사람은 그의 친척이나 그 지역 사람인데 그들이 인정 때문에 그것을 용인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함을 가르쳤다.

2. 거룩하라 / 순종하라 (20:7-9)

1) 거룩하라 (20:7)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명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성소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성소인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했다.

2) 순종하라 (20:8-9)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9절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라는 명령이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내려 주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곧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존재를 없애라고, 곧 저주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3. 간음과 근친혼에 대한 금령 (20:10-21)

간음을 금하면서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이웃의 아내이다. 간통을 한 두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20:10).

이어서 근친혼을 금하였다. 계모나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죄책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다(20:11-12).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가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20:13).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장모를 취하면 그 사람들을 모두 불사르게 하였다(20:14).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그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였다(20:15-16). 사람이 짐승과 교합할 정도로 정욕에 이끌려서 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

남매가 성관계를 맺거나 서로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도 금하였다. 그러한 죄는 가족 안의 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죄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하였다(20:17).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두 사람이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 피는 생명의 근원인데, 정욕 때문에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은 생명을 침해하는 일과 같은 죄다(20:18).

고모와 이모, 숙모,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금하였다. 그들은 자식이 없이 죽는 벌을 받을 것이다(20:19-21).

20장에서 경계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사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신 것이다. 국가와 교회가 일치하던 구약에서는 사형을 시행했다.

4. 순종하라 / 거룩하라 (20:22-26)

1) 불순종에 대한 경고 (20:22-24)

국가적으로 그러한 범죄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실 것을 경고하셨다(20:22; 시 106:37-41; 겔 22:10-11).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 것이다.

2) 거룩하라 (20:25-26)

짐승과 새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인하여 그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한 금령을 내리고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하였다.

5. 신접한 자는 죽이라 (20:27)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하였다. 간음을 금하는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간음과 밀접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적인 죄를 범하면 구약에서는 죽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신약에서는 신체적인 처벌은 정부에 맡기고 교회에서는 출교시킨다(고전 5:10-13).

묵상과 실천:

우상 숭배와 신자의 거룩함

20장은 ‘거룩하라’는 명령이 7절과 26절에 나오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성적인 죄를 금한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선언하시고,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신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막

연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난숙한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살전 4:3-8).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색욕을 좇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함이라고 밝히고 그 거룩함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한다. 그들 안에 성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그들을 격려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5:23-24).

20장 익힘 문제

1. 물례를 섬긴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까? (1-9절)
2.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물례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고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까? (4, 5절)
3. 여호라게서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들로 무엇을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까? (26절)